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빛이납니다.
 대표강사 김현희 강명환
 광주지나 062)228-3222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0(土)	11(日)
흐리고 비 17 / 27℃	비온뒤 갠 18 / 27℃

News

- 한미FTA 농업등 협의실패 ②
- 온라인 게임도 '대·한민국' ③

Jeollado

- 풍수·해상왕국 꿈꾸는 완도 ⑦

Entertainment

- 강타&바네스 '가벼운 수다' ⑧
- 공포영화의 계절이 왔다 ⑨

Books

- 천재의 영감 깨우는 뮤즈 ⑩
- 과학으로 여는 '불가사의' ⑪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 녹차 ⑬



2006 독일 월드컵이 시작된 9일(한국시간)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 스타디움 앞 광장에 모인 축구팬들이 전 세계적인 축하 메시지를 담은 대형 축구공 앞에서 흥겨운 기차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AFP=연합뉴스

열전 한달... 지구촌은 축구 열풍

어제 밤 개막...태극전사 "이 순간을 기다렸다"

World Cup AGAIN 2002
 ▶ 관련기사 3·4·5·14·18·19면

지구촌 최고의 축제 '2006독일월드컵'이 9일 오후 6시(한국시간 10일 오전 1시)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독일 월드컵은 다음달 10일 오전 3시(이하 한국 시간) 베를린에서 열리는 결승전까지 한 달간 12개 개최도시에서 총 64경기가 열리게 된다. 개막식은 9일 밤 11시30분 열렸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창조한 '태극전사'들은 또 한 번의 신화 재창조에 나선다. 한국대표팀은 오는 13일 밤 10시 프랑크푸르트에서 16강 진출에 가장 중요한 일전인 토고와 1차전을 갖는다.

한국축구는 오는 19일 오전 4시 라이프치히에서 '아트사커' 프랑스와, 24일 오전 4시 하노버에서 '알프스 전사' 스위스와 조별리그 2, 3차전을 각각 치르지만 첫 경기에 '올인'해야 할 상황이다.

<10일>	
잉글랜드 프랑크푸르트 22:00 KBS2·MBC·KBC	파라과이
<11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르트문트 01:00 KBS2·MBC·KBC	스웨덴
아르헨티나 함부르크 04:00 KBS2·MBC·KBC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라이프치히 22:00 KBS2·MBC·KBC	네덜란드
<12일>	
멕시코 뉘른베르크 01:00 KBS2·MBC·KBC	이란
앙골라 쾰른 04:00 KBS2·MBC·KBC	포르투갈

태극전사들은 9일 오후 독일 레버쿠젠의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장 '바이 에레나'에서 토고전 승리를 다짐하며 훈련을 갖고 세트플레이와 세기를 가나 들었다. 미드필더인 이을용(31·트라브존스포르)과 이호(22·울산)는 인터뷰를 통해 16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을용은 "선수들 모두 16강 진출이 가능하도록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응원임을 모를 리가 있나요"라고 말했다. 막내급에 속하는 이호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 월드컵 하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왔습니까"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이번 독일월드컵 우승 후보로는 통산 여섯 번째 피파컵에 도전하는 '삼바군단' 브라질을 비롯해 개최국의 이점을 안은 독일, 웨인 루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미드필더진을 자랑하는 '축구중가' 잉글랜드, 카테나치오(빛장수비)에 화력을 실은 '아주리군단' 이탈리아, 남미의 양대산맥 아르헨티나 등 5개국 '0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빅5 매치로는 C조 네덜란드-아르헨티나(6월22일 오전 4시·프랑크푸르트), B조 스웨덴-잉글랜드(6월21일 오전 4시·쾰른), A조 독일-폴란드(6월15일 오전 4시·도르트문트), D조 체코-이탈리아(6월22일 오후 11시·함부르크), H조 스페인-우크라이나(6월14일 오후 10시·라이프치히) 경기가 꼽히고 있다.

조별리그 이후 16강 토너먼트는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우승 후보들이 조 1위로 16강에 올라 8강까지 순항한다면 가장했을 때 준준결승에서 독일-아르헨티나, 이탈리아-프랑스, 브라질-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세기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외규장각 문서 한국 온다

9월 서울서 전시회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명숙 총리는 8일 오후(현지시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오는 9월부터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외규장각 문서 전시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군대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문서가 140년만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한 총리는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빌팽 총리와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고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면서 "외규장각 문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빌팽 총리도 "외규장각 문제 해결을 위해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직접 문서를 열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을에 서

울에서 대대적인 전시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규장각 문서 디지털화는 프랑스가 보관중인 외규장각 문서를 스캔(Scan)해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돈노뉴 드 바브르 문화장관이 조만간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양국 총리간 합의에 따라 외규장각 문서의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전시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한 외규장각 문서 전시회와는 별도로 영구 반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가 협의체널을 조속히 가동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與, 김근태 체제 출범

15인 비상대책위 구성

열린우리당은 9일 과도제헌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갈 신임 당 의장에 김근태 전 최고위원을 선임하는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정동영 전 의장이 지난 1일 사퇴한 뒤 버티던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은 8일만에 정상화됐으며, 우 리당은 창당 이후 4번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비대위의 집행기구 성격인 상임위원에는 김근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김한길 원내대표와 3선의 문화상·이미경·정동채 의원, 재선의 김부겸·정장선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또 3선의 배기선·이석현 의원, 재



김근태 의장

선의 유인태·이호훈·이강래·박병석 의원, 조선의 박명광·윤원호 의원 등 8명은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근태 신임 의장은 선임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31 지방선거 이후 열흘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면서 "민심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 어떤 토도 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비대위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게 되며, 집행기구인 상임위와 의결기구인 '15인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제51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축제(유치부) 공모
 접수마감 : 21일까지
 http://www.kwangju.co.kr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답화이트닝
 아이오피 답화이트닝 만능시트

IOPE